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이상화 "오늘은 기쁨의 눈물"

17일 오전(한국시간)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경기장에서 열린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우승한 이상화가 손을 흔들고 있다.

완벽한 파워, 빠른 스타트 '스프린트 여제'

세계기록 보유자 獨 볼프 0.05초차로 제쳐

동계올림픽 사상 여자 빙속 아시아 최초 金

이상화(21·한국체대)가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상화는 17일(한국시간) 캐나다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벌어진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1,2차 시기 합계 76초09로 결승선을 통과, 세계기록 보유자 예니 볼프(76초14)를 0.05초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상화는 한국이 처음 참가했던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이후 무려 62년 만에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부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주인공이 됐다.

특히 이상화는 역대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부 전종목(500m, 1,000m, 1,500m, 3,000m, 5,000m)에 거쳐 금메달을 차지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 우뚝 섰다.

남자부 500m 모태범(한국체대)의 금메달 이후 이상화마저 여자부 500m를 석권하면서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스프린트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1차 시기에서 독일의 강호 볼프와 17조에서 아웃코스에 자리잡은 이상화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살짝 움찔했고, 심판은 출발 신호 이후 재총성을 울려 이상화의 부정 출발을 선언했다.

두 번째 출발 신호를 기다리던 이상화는 총성 소리와 함께 재빨리 뛰어나갔고 100m를 10초34에 뛰었다. 볼프(10초26)에 0.08초 뒤졌지만 역주를 펼친끝에 볼프보다 0.06초 빠른 38초24에 주파했다.

전광판에는 중간 순위 1위를 알리는 사인이 들어왔고, 한국 응원석에선 이상화의 '금빛 완성'을 바라는 함성이 쏟아졌다.

2차 시기 상대 역시 볼프. 볼프와 함께 18조에 묶인 이상화는 링크 주변을 가볍게 돌면서 서서히 땀을 냈다.

경쟁 선수들의 경기가 계속됐고, 메달 경쟁자인 왕베이싱의 순서가 돌아왔다. 17조에서 경기를 치른 왕베이싱은 2차 시기에서 38초14를 뛰면서 1, 2차 시기 합계 76초63으로 중간 순위 1위로 치고 올랐다. 이상화의 경기 차례가 되자 전광판에는 38초39를 뛰어야만 왕베이싱을 이길 수 있다는 화면이 흘러나왔고, 이상화는 출발 신호와 함께 재빠르게 얼음판을 뛰어나갔다.

초반 100m가 약점이었지만 이상화는 1차 시기보다 빠른 10초29를 기록했고, 볼프와 나란히 나머지 400m를 역주하면서 힘차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볼프가 37초83, 이상화가 37초85였다.

1, 2차 시기 합계 76초09로 볼프(76초14)를 0.05초의 간발의 차로 제치고 감격의 금메달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함께 경기를 치른 이보라(동두천시청)은 78초80로 26위에 오른 가운데 안지민(이화여고·79초14)과 오민지(성남시청·79초58)는 각각 31위와 32위로 처졌다. 북한의 고현숙은 1차 시기에서 38초89를 기록하고 2차 시기에서 38초58를 타면서 합계 77.47로 종합 9위에 오르면 파란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 '스프린트 여제' 이상화 일문일답

"남자선수와 훈련 큰 도움 태범이 와서 긴장 풀어줘"

털털한 성격에 보이시한 매력의 그녀였지만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17일(한국시간) 캐나다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1위를 차지한 이상화는 전광판을 쳐다보고 금메달을 확인하자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다음은 이상화와 일문일답.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처음 금메달 딴 소감은

▲정말 믿기지 않는다. 전광판에서 1위에 오른 것을 보고 믿어지지 않았다.

-금메달을 확인한 뒤 트랙을 돌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4년 전 토리노에서도 울었다. 그때는 메달권에 들지 못해 아쉬움의 눈물이었는데 오늘은 기쁨의 눈물이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심정이었나

▲솔직히 되게 떨렸다. 어제 밤에는 진정이 안돼 떨리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도 너무 긴장돼 클래식 음악을 틀었는데 (모)태범이가 와서는 '평소 하던대로 해라'고 하더라.

-1차 시기에서 부정 출발이 나왔는데

▲부정 출발을 하긴 했지만 호흡이 나쁘지 않았다. 다만 같이 탄 예니 볼프에게 미안했다.

-기량이 향상된 비결이 있다면

▲남자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을 많이 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특히 오빠들이 앞서 뛰면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동안 피겨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에 비해 스피드스케이팅이 조명을 받지 못했는데.

▲서러운 점도 있었다. 얼마전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에서 종합 1위를 했는데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니 묻혀버리더라. 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정말 기쁘다. /연합뉴스

코리아 '빙속 강국'

세계 최초 500m 男女 동시 석권

한국이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50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남녀 500m 우승 쾌거를 이룬 모태범(21·한국체대)에 이어 17일(한국시간) 이상화(21·한국체대)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500m를 석권한 국가가 됐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이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60년 미국 스쿼밸리 대회 이후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반세기 동안 올림픽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은 미국과 옛 소련, 동독과 서독, 그리고 캐나다 등 5개 나라만 나눠 가졌다.

그러나 이들 '빅5'조차 남녀 500m를 동시에 우승한 적이 없었다.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중에서도 가장 짧은 거리를 주파하는 500m는 지구력보다는 근력과 순발력이 더 중요한 종목이라 체격과 파워에서 유럽에 뒤지는 아시아 선수가 정상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다.

아시아인이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불과 12년 전인 1998년 나가노 대회 때 일본의 시미즈 히로야스가 남자 500m에서 우승한 것이 처음이었다.

남녀 500m 우승 쾌거를 이룬 모태범과 이상화, 5000m 은메달 이승훈(왼쪽부터). 한 나라에서 남녀 스피드 스케이팅 500m를 석권하기는 대회 역사상 처음이며 아시아에서 장거리인 5000m경기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기도 처음이다. 세 선수는 한국체대 07학번 동기다.

아시아 여자 선수가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메달을 처음 딴 것도 1964년 인스브루크 대회 때 여자 3,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북한의 한필화가 처음이었다. 중국의 예차오보, 왕만리가 1992년 알베르빌 대회와 2006년 토리노 대회 등에서 은메달 3개를 보탰지만 금메달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변방으로 취급받던 한국이 500m 동반 우승으로 단숨에 스피드스케이팅 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한편 모태범과 이상화는 각각 남녀 세계 기록 보유자인 제레미 워더스푼(캐나다)과 예니 볼프(독일)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내는 이변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오늘도 금빛 질주

모태범·이규혁 1000m 결승 출전

'금메달 한 개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이번에는 주종목에서 2관왕을 노린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배출한 '깜짝 스타' 모태범(21·한국체대)이 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에 이어 자신의 주종목인 1,000m에서 '흑색탄환' 샤니 데이비스(미국)를 상대로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모태범과 '맏형' 이규혁, 이기호(이상 서울시청), 문준(성남시청)은 18일(한국시간) 오전 한국 빙속의 '금메달 성지'가 된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남자 1,000m 결승에 출전한다.

역시 관심은 500m 금메달리스트 모태범과 아쉽게 500m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이규혁의 선전 여부에 쏠린다.

모태범과 이규혁은 2009-2010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각각 남자 1,000m 랭킹 2, 3위에 올라 있어 유력한 메달 후보로 손꼽힌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적수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 1,000m에서 우승했던 데이비스다. 데이비스는 모태범과 이규혁에 앞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선수단 내일의 경기일정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천m 결선 〈오전 6시~오전 7시30분〉

◇ **스켈레톤**= 남자 1인승 예선 〈오전 9시~오후 2시〉

◇ **바이애슬론**= 여자 15km 개인결선 〈오전 3시~오전 4시40분〉 남자 20km 개인결선 〈오전 6시~오전 7시35분〉